

# 제주 귀덕마을 전통가옥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Space Organization of a Traditional Houses in Kyideok Village, Jeju, Korea

신 응 주\*

Shin, Woong-Ju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uses, transformations, changes of plane and arrangement, and changes of space structure of housing components with traditional folk houses located at Kyideok village, Hanrim-cup, Jeju,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posure of arrangement of folk houses at Kyideok village, Jeju was evenly distributed to the east, the southeast, the northeast and the west in order and it was little different from the use of sunshine conditions by placing the main room on the south in traditional houses of land areas.

Second, the space structure of inner room before transformation was divided into seven types. 3-room type was classified into 『Sangbang-centered three-room type』 and 『nanggan-centered three-room type』, 4-room type into 『four-room type with inner access to warehouse』, 『four-room type with outer access to warehouse』, 『kitchen-divided four-room type』, 『four-room type with two kitchens』, 『four-room type with nanggan at the right back』.

Third, according to types of change in arrangement type, the first is new annex addition to existing inner room, the second is the removal of existing annexes including outer room, the third is the extension of inner room size without new construction of annex, the fourth is new construction of annex with new plane form after removal of existing annex, the fifth is no change in arrangement of inner room, outer room, stable, warehouse, etc.

Fourth, transformation of space components led to changes of space structure as well as those of plane form. Changes of space structure were divided into reduction type of circulation to specific factors, negligence type without using increased space factor, and addition type having various circulations through the increase of convenience space.

키 워 드 : 제주, 귀덕마을, 공간구성, 변용(변화)

Keywords : Jeju, kyideok Village, Space Organization, Transformation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사회의 구조는 성(性)의 구별이 없어지고 편리함을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사고를 추구함에 따라 제주도 귀덕마을 가옥들의 주생활도 하나의 단위 건축물로 집중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개인방의 확보, 침실의 분리현상도 도드라졌다.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어 기존의 가사노동공간이 적극적으로 개조·확장되었고 가사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엌은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핵가족화 되면서 주부를 위한 공간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여성이 가사일 전반에 참여함에 따라 가사노동의 편리를 위하여 가전제품의 사용 빈도가 커졌으며 부엌의 설비시설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가족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들은 거주자의 고령화와 자녀의 도시 이동 등 생애주기가 변함에 따라 이용의 빈도가 감소하면서 공간의 구조가 축약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귀덕마을 전통가옥들은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서민생활의 전모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으나 귀덕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과거의 생활공간에서 현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모순적인 여건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고령화 등 거주자의 상황성 변화로 인하여 각 가옥에 변용(變容)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제주에 관한 연구들은 민속마을과 제주 전통가옥을 활용한 관광개발방안 연구나 가옥의 양식과 형식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시 한림읍 해안에 위치한 귀덕마을의 가

\* 정희원, 일본나라문화재연구소 객원연구원

옥들을 대상으로 지역색을 파악하고 근대화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안거리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변용의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찰한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연구로 연구방법은 이론고찰과 현장조사,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론고찰은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함과 동시에 연구대상과 그 방법을 모색하였다. 현장조사는 상기 건축물에 대해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로 나누어 행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제주귀덕마을과 대상가옥의 특징을 기술하였고 제주귀덕마을 가옥의 공간구조를 배치형태와 안거리 공간구조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다양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각 가옥의 배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거리로 대표되는 주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변용된 평면의 동선체계를 중심으로 신축당시와 현재의 공간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거주자의 개선행위가 안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하는 귀덕마을의 전통가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2. 귀덕마을과 대상 가옥의 특징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약 32km의 거리에 위치한 한림읍 귀덕리는 원래 10개의 작은 부락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일제시대와 1960년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면서 3개의 리(里)와 8개의 동(洞)으로 개편되었다. 귀덕리는 금성리, 애월리, 주원리, 대림리, 상대리 등과 접해있다. 예전에는 귀덕리를 석천촌(石淺村)이라고 했는데 석천의 의미가 뒤덕리 바닷가에 있는 두 개의 여를 석천도라고 부르는데서 전해졌다고 한다.<sup>2)</sup>

이 귀덕리의 마을들 중 조사대상 가옥이 있는 곳은 귀덕1리의 남쪽에 위치하는 중동마을로서 40여 호의 가옥이 밀집해 있다.<sup>3)</sup> 각 가옥들은 일반적인 제주도 전통가옥의 배치형태를 보인다. 거주하는 실이 있는 살림채만을 대상으로 가옥의 배치형태를 분류하여 보면 일자, 이자, 드물게 ㄱ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2자형이 주류를 이룬다. 2자형은 밖거리에 정지를 두거나 정지없이 구들과 헛간

2) 일반적인 전통가옥에서 안과 밖은 담장에 의해 공간이 구획되지만 제주의 전통가옥에서는 울레라는 것이 있어 안과 밖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다. 울레는 유도하는 울담에 의해 방향성이 주어지며, 그 연속에 의해 내외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귀덕마을을 포함한 제주도의 전통가옥들은 일자형이 대부분으로 한국의 남부지역과 비슷하지만 간살은 양통집의 형식이 대부분으로 북부지방이나 일본과 유이한 점이 있다. 집의 배치는 건축물의 수에 따라 외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및 네거리집으로 크게 나뉜다.

3) 제주박물관, 귀덕리학술조사, 1987, pp.164~165

표 1. 조사대상가옥의 일반적인 특징

| 번호 | 소유주 | 주소     | 배치 | 면적    | 정면칸 | 건축   | 방수 | 건물구분 |
|----|-----|--------|----|-------|-----|------|----|------|
| 1  | 남진규 | 718    | 二字 | 47.79 | 4칸  | 1940 | 3  | 안거리  |
| 2  | 강성선 | 713    | 二字 | 55.37 | 4칸  | -    | 4  | 안거리  |
| 3  | 좌태은 | 787-2  | 二字 | 54.71 | 4칸  | 1933 | 2  | 안거리  |
| 4  | 고영식 | 788    | 二字 | 43.7  | 3칸  | 1950 | 2  | 안거리  |
| 5  | 고원향 | 786    | ㄱ자 | 43.57 | 4칸  | 1933 | 3  | 안거리  |
| 6  | 김윤옥 | 777-2  | 二字 | 50.77 | 3칸  | -    | 2  | 안거리  |
| 7  | 남인화 | 770-2  | 일자 | 32.63 | 3칸  | 1941 | 2  | 안거리  |
| 8  | 김두행 | 767    | ㄱ자 | 42.23 | 3칸  | 1933 | 2  | 안거리  |
| 9  | 이순민 | 761    | 一자 | 40.87 | 3칸  | -    | 2  | 안거리  |
| 10 | 고경하 | 778    | 二字 | 48.14 | 4칸  | 1960 | 3  | 안거리  |
| 11 | 강두하 | 775(a) | 二字 | 43.22 | 3칸  | 1933 | 2  | 안거리  |
| 12 | 이지진 | 1298   | 일자 | 43.65 | 3칸  | 1937 | 2  | 안거리  |
| 13 | 고태원 | 1297   | 二字 | 36.04 | 3칸  | 1933 | 2  | 안거리  |
| 14 | 김중화 | 1290   | 二字 | 41.53 | 3칸  | 1933 | 3  | 안거리  |
| 15 | 조철웅 | 1293   | ㄱ자 | 46.42 | 4칸  | 1935 | 3  | 안거리  |
| 16 | 고경오 | 1300   | 二字 | 51.88 | 4칸  | 1933 | 4  | 안거리  |
| 17 | 김중화 | 1301   | 二字 | 56.96 | 4칸  | 1985 | 4  | 안거리  |
| 18 | 김임문 | 1366-2 | 二字 | 50.3  | 4칸  | 1941 | 2  | 안거리  |
| 19 | 이태순 | 1346-5 | 二字 | 84.1  | 4칸  | -    | 4  | 안거리  |
| 20 | 이두옥 | 1343-4 | 二字 | 58.82 | 4칸  | 1960 | 3  | 안거리  |
| 21 | 김제진 | 1341   | 一자 | 43.55 | 3칸  | 1948 | 4  | 안거리  |
| 22 | 강우진 | 752-2  | 二字 | 53.92 | 4칸  | 1966 | 4  | 안거리  |
| 23 | 조인학 | 748    | 一자 | 60.11 | 4칸  | 1960 | 5  | 안거리  |
| 24 | 이순여 | 1312   | 一자 | 52.12 | 3칸  | 1933 | 3  | 안거리  |
| 25 | 조형표 | 1308   | 二字 | 55.37 | 3칸  | 1933 | 3  | 안거리  |
| 26 | 홍성화 | 1323-1 | 二字 | 26.97 | 3칸  | 1933 | 3  | 안거리  |
| 27 | 홍성춘 | 1316-2 | 一자 | 50.27 | 3칸  | 1933 | 2  | 안거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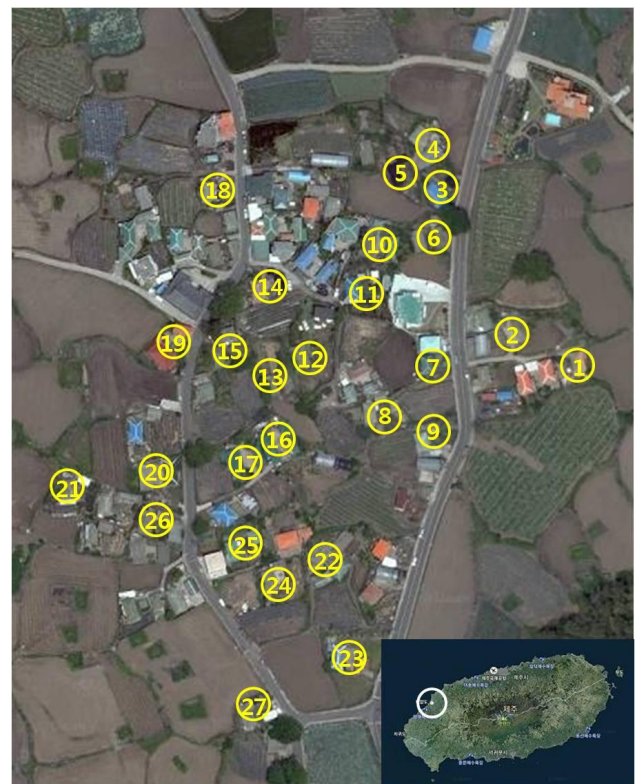


그림 1. 귀덕마을의 조사대상가옥

부속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거리는 3칸형과 4칸형이 있는데, 찻방이 있는 4칸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칸형

표 2. 대상가옥의 각 실별 이용실태

| 구분    |         | 현재 이용실태  | 과거 이용실태                               |
|-------|---------|--|---------------------------------------|
| 정지    | 정지      | 식사준비, 창고, 설거지                                    | 식사준비, 설거지                             |
|       | 부엌      | 입식으로 개수, 식사준비, 식사, 설거지, 설거지 수납                   | 식사준비                                  |
| 작은 구들 | 작은구들    | 주인침실, 식사, 손님접대, 일상생활, 손님취침                       | 주인침실, 손님접대                            |
|       | 작은방     | 공부방, 주인침실, 식사, 손님맞이, 일상거처, 손님침실, 어머니 거처, 제사, 가사일 | 주인침실, 손님맞이, 제사, 주인거처, 딸거처             |
| 상방    | 상방      | 식사준비, 식사, 손님맞이, 통로                               | 손님맞이, 가족단란                            |
|       | 마루      | 식사, 손님접대, 통로, 취사, 수장, 취침, 제사                     | 휴식, 손님접대, 가족단란, 식사, 가사                |
| 큰구들   | 큰구들     | 손님취침, 제사   | 자녀공부, 곡식보관, 자녀침실, 제사, 주인거처            |
|       | 안방      | 부부침실, 손님맞이, 제사, 식사, 주인침실, 아들침실                   | 자녀침실 및 공부방, 안주인거처                     |
|       | 큰방      | 제사, 주인침실, 공부방, 자녀거처, 손님취침, 손님맞이, 식사, 딸 거처        | 주인거처, 제사, 자녀방, 자녀거처                   |
|       | 제사방     | 제사, 손님취침   | 바깥주인거처, 제사                            |
| 챗방    | 자녀방     | 큰구들을 개수함, 제사와 손님침실                               | 자녀거처, 제사                              |
|       | 챗방      | 창고, 통로공간, 수납공간, 식사                               | 식사장소                                  |
|       | 보일러실    | 챗방을 개수, 난방방식의 변화로 증축됨, 난방                        | 차마, 식사                                |
| 고팡    | 고팡      | 창고   | 곡식보관, 식사, 창고                          |
|       | 히드렛방    | 고팡을 개수, 가사도구 수납                                  | 곡식저장                                  |
|       | 방       | 고팡을 방으로 개수, 주인거처, 손님맞이, 손님침실, 식사, 아들 거처          | 자녀거처, 공부방, 창고, 곡식저장, 주인거처, 제사, 바깥주인거처 |
| 낭간    | 통로, 현관  | 통로, 손님맞이   |                                       |
| 굴목    | 사용하지 않음 | 난방   |                                       |
| 증축    | 물부엌     | 빨래, 제사준비   | -                                     |
|       | 창고      | 가사도구 저장  | 가제도구 저장                               |
|       | 할머니방    | 사용하지 않음  | 할머니거처                                 |
| 수돗가   | 설거지, 빨래 | -  |                                       |

은 정지에 작은구들을 둔 것과 정지의 작은구들과 상방 사이에 마루를 설치한 2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조사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2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가옥을 구성하는 요소는 큰구들, 작은구들, 정지, 상방, 고팡, 챗방, 굴목, 안방, 작은방, 마루 등 단위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sup>4)</sup> 이러한 구성요소의 사용여부와 증감을 살펴 주공간 구성요소의 변용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간구성요소중 작은구들은 안주인이, 바깥구들은 바깥주인이 기거하던 공간으로 그 개수는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으며, 상방과 정지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개수의 증감과 같은 물리적인 변용과 상관없이 각 실의 용도는 다양하게 변용되고 있다. 큰구들은 바깥주인의 거처로 제사를 모시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녀의 거처나 손님의 침실로 이용되고 있어 가정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작은구들은 안주인의 일상거처공간으로 식사와 손님접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옥이 가장 주된 공간요소이다. 상방의 경우 가사일과 단란공간, 손님접대를 위한 공간으로 물리적인 형태는 변화하였으나 용도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챗방과 고팡의 경우 원래의 기능인 식사와 수장 외에 방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정지의 경우는 60%

정도 입식화 되었지만 화장실과 욕실 등의 위생공간이 부가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 3. 가옥의 공간구조

#### 3.1 가옥의 배치형태

제주시 귀덕마을 조사대상 가옥의 배치 좌향<sup>5)</sup>은 주로 동향, 남동향, 북동향, 서향의 순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내륙지방의 전통가옥에서 남쪽 중심으로 안채의 향을 설정하여 일조조건을 이용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 27곳의 가옥 중 25곳이 동쪽을 중심으로 동향이 9곳, 남동향이 9곳, 북동향이 7곳으

표 3. 안거리의 배치 향

| 구분    | 남향 | 남서향 | 서향         | 북서향 | 북향 | 북동향   | 동향  | 남동향   |
|-------|----|-----|------------|-----|----|---|---|---|
| 배치 가옥 |    |     | 남무형<br>홍해생 |     |    | 좌태은<br>고원향<br>이치진<br>고경오<br>이태순<br>이순여<br>홍성춘 | 고원선<br>남인화<br>김이진<br>이성진<br>김중화 <sup>2</sup><br>김중화 <sup>2</sup><br>김갑생<br>이두욱<br>조형표 | 강성선<br>고영식<br>홍계숙<br>고영민<br>조철웅<br>김재진<br>강우진<br>조인학<br>송여방 |
| 수     | 0  | 0   | 2          | 0   | 0  | 7   | 9   | 9   |
| (%)   |    |     | 8          |     |    | 26  | 33  | 33  |

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조사대상 가옥들 중 많은 수가 해안 쪽에 위치해 있어 바다를 향해 좌향을 설정한 것과 북향 등 특이한 좌향을 택한 가옥들은 입지적

5) 가옥 전체의 좌향(座向)은 안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4) 구들: 큰 구들과 작은 구들이 있는데 보통 큰구들은 부부가 사용하고 작은구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  
정지: 가사노동의 공간, 여성공간. 취사등을 위한 부엌공간  
상방: 주택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개방적인 다목적 공간  
고팡: 식량, 씨앗 등을 담은 항아리 등을 보관하는 저장공간  
챗방: 식사와 통로의 용도로 이용되는 마루방  
굴목: 아궁이설비가 있는 별도의 공간

표 4. 배치형태의 분류

|       | 一자형 | 二자형 | 튼ㄱ자형 | 튼ㄴ자형 | 튼ㄹ자형 | 자유형 |
|-------|-----|-----|------|------|------|-----|
| 배치형태  |     |     |      |      |      |     |
| 가옥수   | 1   | 9   | 6    | 6    | 0    | 5   |
| 비율(%) | 4   | 33  | 22   | 22   |      | 19  |

조건에 있어 북쪽이 물과 농토가 있고 뒤쪽은 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입지에 따라 좌향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옥의 배치 또한 대지의 안에 위치한 안거리를 중심으로 밖거리와 기타 부속채가 대지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근거리에서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각 가옥의 실측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대상 가옥의 배치형태는 앞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부속채들이 이루는 형상에 따라 一자형, 二자형, 튼ㄱ자형, 튼ㄴ자형, 튼ㄹ자형, 부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一자형이 1가옥, 二자형 9가옥, 튼ㄱ자형, 튼ㄴ자형이 각각 6가옥과 7가옥, 자유형 4가옥 순으로 나타나 一자형과 튼ㄹ자형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고른 배치 유형이다. 안거리에서 대문, 밖거리를 포함한 부속채의 위치는 대문의 경우 주로 5~10m 사이에 위치하고 그 방향은 주로 남동과 남서로서 정면진입 보다는 좌측과 우측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속채도 대문과 동일하게 5~10m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방향은 남동에서 남서 사이에 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문에서 안채로의 진입은 직선진입이 대부분이고 이중 남동에서 진입하는 가옥이 많다.

### 3.2 안거리 공간구조의 특징

신축당시 안거리의 공간구조<sup>6)</sup>는 앞서 작성한 평면도를 통하여 7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크게는 3칸형과 4칸형으로 구분되고 3칸형은 『상방중심3칸형』, 『낭간중심3칸형』으로, 4칸형은 『고광내부출입4칸형』, 『고광외부출입4칸형』, 『정지분할4칸형』, 『2칸정지4칸형』, 『정배면낭간4칸형』으로 재분류된다.

#### (1) 3칸형

『상방중심3칸형』과 『낭간중심3칸형』은 가운데 칸에 상방이 위치하고 양 옆으로 큰구들과 고광, 정지와 작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상방중심3칸형』의 경우 큰구들, 상방, 작은구들의 정면에는 낭간이 있으나 내부로의 연결은 상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낭간중심3칸형』은 대정역할의 상방 뿐만 아니라 낭간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3칸형의 가옥들은 간혹 정지와 작은구들의 위치가 상호 바뀌기도 하는데 정지가 정면에 위치할 경우 정지 앞의 낭간은 생략된다. 상방에

서는 대부분의 실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어 4칸형의 챗방에서 이루어지던 식사행위의 장소가 『상방중심3칸형』과 『낭간중심3칸형』에서는 상방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보통 큰구들은 정지와 거리가 멀어 별도의 난방시설인 굴묵이 설치되어 함실아궁이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비와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상 굴묵도 돌담으로 구획된 내부공간요소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4칸형

『고광내부출입4칸형』, 『고광외부출입4칸형』은 제주도 전통가옥을 대표하는 4칸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16곳

표 5. 신축 당시 안거리의 공간구조

|     | 유형                | 수 | 공간구조 | 평면구조 |
|-----|-------------------|---|------|------|
| 3칸형 | 상방중심3칸형 (작은구들3칸형) | 3 |      |      |
|     | 낭간중심3칸형 (작은구들3칸형) | 8 |      |      |
| 4칸형 | 고광내부출입4칸형         | 8 |      |      |
|     | 고광외부출입4칸형         | 4 |      |      |
|     | 정지분할4칸형           | 2 |      |      |
|     | 2칸정지4칸형           | 1 |      |      |
|     | 정배면낭간4칸형          | 1 |      |      |

■ 일상거처공간

■ 가사노동공간

■ 집객맞단관공간

■ 수장공간

■ 기타공간

○ D 챗방 R1 R2 구들

○ K 정지 B 굴묵

○ F 낭간 E 상방

○ G 고광

○ Y 마당

▮ 공간요소간 연결

▮ 공간요소와 외부연결

6) 김정기·김홍식, “주택”,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 보고서』, 제주도, 1973, pp.280~296. 이후에 연구자들은 이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 4칸형 가옥 중 12곳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큰구들과 작은구들은 상방을 중심으로 양 옆에 위치하고 작은구들의 옆으로 다시 정지가 위치하는 공간구조이다. 이 둘의 평면형태는 동일하지만 고팡의 출입위치에 의해 공간구조 상에서는 분류가 가능하다. 내부로 통하는 고팡은 주로 곡식을 저장하였고 외부에서 통하는 고팡은 농기구를 비롯한 각종 생산도구의 보관 장소로 생각할 수 있다. 4칸형의 다른 특징으로 정지와 상방을 연결하는 챗방이 놓였다는 점이다. 정지와 챗방 사이에는 벽과 문이 없이 트인 공간으로 3칸형의 정지나 상방에서 이루어지던 식사행위가 챗방에서 해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분할4칸형』은 혼합형 평면구조로 『고팡내부출입4칸형』, 『고팡외부출입4칸형』의 기능을 모두 충족시킨다. 기존의 『고팡내부출입4칸형』에 정지의 배면 일부를 할애하여 고팡을 두고 외부와 정지의 양쪽에서 출입이 가능한 평면구조이다. 정지의 배면에 고팡이 있으므로 정지로부터 챗방을 거쳐 상방으로 통하는 곳에서는 『고팡내부출입4칸형』 외의 유형들보다 챗방의 폭이 더 넓어야 정지와 챗방이 이어지는 동선의 확보가 가능하다.

『2칸정지4칸형』은 다른 유례가 없는 특수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통 한 칸에 정지가 놓이거나 정지와 작은구들 등이 배치되어 공간이 구성되는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고영민가옥에서는 정지와 상방 사이에 또 다른 정지가 확인된다. 안거리의 전체 면적에 대한 정지의 면적비가 상당히 높다. 정지와 정지는 벽체로 구분되어 있으나 개구부를 통하여 상호 연결되는 점으로 미루어 다른 4칸형에 존재하는 챗방의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상방부분도 일반적인 4칸형과는 달리 배면에 바깥으로부터 통할 수 있는 고팡이 존재하여 큰구들 배면의 곡식 저장 고팡과의 연결이 불편하다.

마지막으로 『정배면낭간4칸형』은 안거리 정면의 낭간과 배면의 낭간이 규모가 비슷하여 평면상으로 정배면의 구분이 모호한 공간구조를 지닌다. 정면의 낭간에서는 큰구들로 배면의 낭간에서는 작은구들로의 동선이 원활하다. 뒷마당이 존재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구조로 한 건축물에서 여러 행위를 수용하기에 적당한 구조이다. 조철용가옥의 배치를 살펴보면 배면에 독립된 마당공간이 있어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배면의 퇴에 낭간을 두고 작은구들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냄으로써 작은구들의 생활영역을 따로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4. 공간구조의 변화

##### 4.1 가옥 배치의 변화

지금까지 서술한 가옥의 배치는 과거와는 상이한 현재의 배치 형태로서 1900년대 초반에 건축된 27곳의 가옥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생활 및 가족구성원의 변화

표 6. 가옥배치의 변화 유형

| 과거                      | ⇒ | 현재  | 수  | 특징   |
|-------------------------|---|---|----|--|
| 안거리<br>마당<br>-자형        |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br>⇒<br>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3  | - (남무형가옥)안거리의 맞은편에 창고를 신축하여 수장공간으로 사용<br>- (남인화가옥)안거리의 맞은편에 밖거리를 신축하여 방과 창고로 사용              |
| 안거리<br>마당<br>-자형        |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br>⇒<br>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2  | - (고영식가옥)안거리의 맞은편에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주생활공간으로 사용. 새로운 주생활 공간의 신축으로 기존의 변용은 일어나지 않음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br>⇒<br>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1  | - 기존의 밖거리 2채를 철거하고 변소를 창고로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화장실을 신설함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br>⇒<br>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2  | - (김이진가옥)안거리의 맞은편에 헛간이 있는 -자형 배치구조에서 가옥의 출입구쪽에 방을 신설<br>- (이태순가옥)안거리부역의 앞에 물부역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br>⇒<br>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3  | - (고경오가옥)안거리의 옆에 욕실이 신설<br>- (김재진가옥)안거리의 서쪽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생활공간으로 활용함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 | 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br>⇒<br>안거리<br>마당<br>부속채<br>-자형 | 1  | - 안거리, 밖거리, 쇠막으로 구성된 배치형식에서 쇠막이 철거됨  |
| 배치형태의 변화가 없음            |   |   | 15 |  |

과정을 겪으면서 증축, 개축, 신축, 철거 등의 다양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 신축 당시 각 가옥의 배치형태는 현장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문헌자료를 통하여 각 건물의 평면구성요소까지 추정하여 표시하였다.

배치형태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가족구성원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주생활공간의 소요면적 변화, 거주자의 경제력, 대지의 형상, 기존 안거리의 규모 각 가옥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배치형태 변화의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다섯 종류로 축약된다. 첫째, 기존의 안거리 외에 새로운 부속채가 추가되는 경우. 둘째, 밖거리를 포함한 기존의 부속채가 철거되는 경우. 셋째, 부속채의 신설이 없이 안거리의 규모를 확장하여 평면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넷째, 기존 부속채를 철거한 후 새로운 평면형태의 부속채를 신축하는 경우. 다섯째, 안거리와 밖거리, 쇠막, 헛간 등 부속채의 배치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이다.

안거리를 기준으로 한 부속채의 증축위치를 살펴보면

표 7. 배치형태의 변화 유형

| 유형          | 특징  |
|-------------|---|
| 부속채 추가      | 기존 안거리 외 새로운 부속채가 추가된 경우                  |
| 부속채 철거      | 밖거리를 포함한 기존의 부속채가 철거된 경우                  |
| 안채 규모 확장    | 부속채의 신설이 없이 안거리의 규모를 확장하여 평면형태가 변화한 경우    |
| 부속채 철거 후 신축 | 기존 부속채를 철거한 후 새로운 평면형태의 부속채를 신축한 경우       |
| 기존형태유지      | 안거리와 밖거리, 쇠막, 헛간 등의 부속채의 배치형태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 |

전체 부속채 신설의 91%인 20건의 건축행위가 안거리의 전방에서 행해진데 비하여 측면과 배면의 합은 2건에 지나지 않는다. 마당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부속채를 신설한 경우는 전체 22건의 68%인 15건이다. 빈도가 높은 안거리의 맞은편과 좌우측은 생활공간 및 수장공간의 확장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빈도수 7에 해당하는 마당의 우측과 맞은편은 각각 생활공간과 수장공간의 신설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안거리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는 보조 생활공간을 가옥의 출입구 근처인 안거리의 건너편에는 수장공간을 신설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옥 전체의 면적과 비교하여 마당의 넓이는 제주도 외 지역의 가옥마당보다 상대면적과 개방감이 덜하지만 마당을 비우고 증축한 것은 이곳의 마당도 가옥 내의 중요한 작업장, 건조장, 만남의 장 등의 완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 가옥의 배치형태 변화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속채추가형

부속채추가형은 안거리 확장 및 부가 등의 행위가 없는 가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가옥의 안거리는 3칸의 규모로 조사대상 귀덕마을의 27곳 가옥의 안거리는 4칸형이 더 많음을 감안하였을 때 평면의 협소함과 목재의 단면이 작은 목조 초가의 증축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안거리의 확장보다 손쉬운 재료에 의한 대지 내 부속채의 신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안거리를 중심으로 본 부속채의 증축위치 (숫자 : 해당 위치의 빈도, 중복 표기함)

고영식가옥과 김재진가옥 안거리의 최초 평면형태는 「작은구들이 있는 3칸집」<sup>7)</sup>이었다. 이러한 평면의 형태

7) 임성추, 성읍민속마을의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35~42

의 대부분은 공간의 확장을 위하여 개수가 이루어졌으나 근대화시기에 건축되어 주생활을 수용하는 부속채로 인해 현재까지 변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례이다. 단, 대지 내에 건축된 부속채는 기타 배치 유형에서 나타나는 부속채에 비하여 그 규모가 월등히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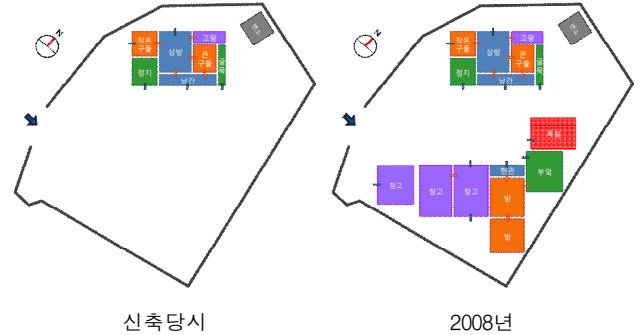


그림 3. 부속채추가형의 사례 (고영식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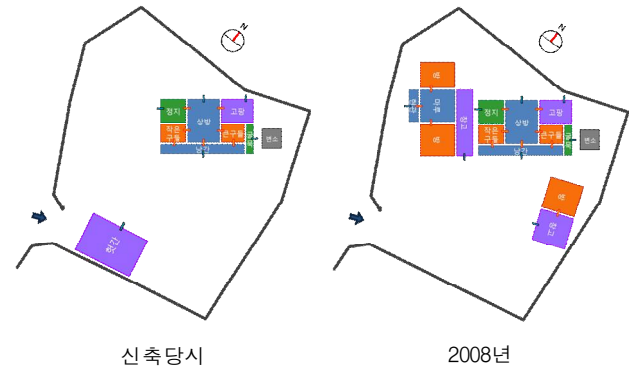


그림 4. 부속채추가형의 사례 (김재진가옥)

(2) 부속채철거형

부속채철거형은 생애주기적 변화에 따라 가옥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었던 시기가 지남에 따라 방치된 부속채들이 자연스럽게 멸실되었거나 철거된 경우이다. 방의 사용빈도가 낮아질 경우 수장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가 거주자가 고령화되어 경제 활동범위가 축소되면 수장공간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멸실될 가능성이 높다.

홍계숙가옥은 부속채철거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초 건축 당시에는 안거리와 밖거리 2채의 평면형태가 유사하여 각각의 채가 살림이 가능한 구조로 존재하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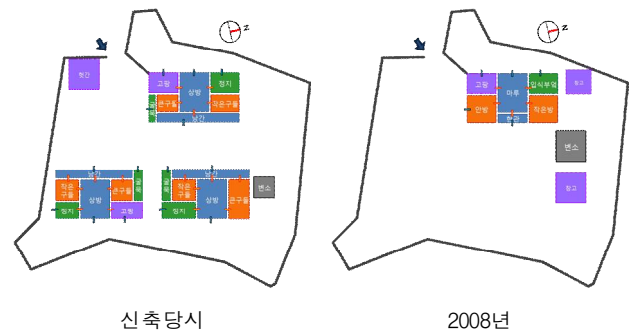


그림 5. 부속채철거형의 사례 (홍계숙가옥)

한다. 그러나 가족의 핵가족화, 이농현상 등의 이유로 안거리 중심의 주생활이 빈번해지고 그에 따라 안거리의 평면형태 변화도 찾아지게 되었던 경우이다. 부속채인 밖거리 2채는 멸실되었고 안거리의 평면형태는 마루와 입식부엌 중심의 공간구조로 재편되었다. 난방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안거리의 굴목은 방으로 병합되었고 대지 북쪽의 창고는 신설되었다.

(3) 안채규모확장형

안채규모확장형은 대지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좁아 새로운 부속채의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생활이 현대화됨에 따라 기존의 협소한 정지를 넓혀 입식부엌으로 확장 개조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김갑생가옥 안거리의 정지, 낭간일부, 작은구들, 뒷방을 개조하여 보일러실, 입식부엌, 물부엌, 작은방으로 확대 개조한 경우이다. 조형표가옥도 부엌을 배면으로 확장하고 남쪽으로 물부엌을 부가하여 안거리 형태의 사례이다.



그림 6. 안채규모확장형의 사례 (김갑생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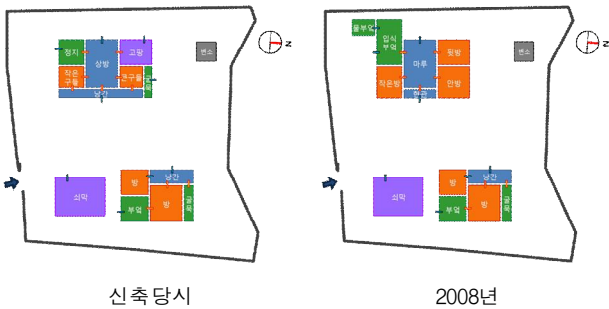


그림 7. 안채규모확장형의 사례 (조형표가옥)

(4) 부속채철거후신축형

부속채철거후신축형은 안채의 주변에 있던 부속채를 철거한 후 같은 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 규모의 차이가 생겨나도록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성진가옥에서는 헛간과 쇠막이던 부속채를 해체한 후 방 2칸을 신설하였다. 이태순가옥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안거리의 정면과 측면을 처마끝선까지 증축하였고 부엌 쪽에 물부엌을 내달았으며 가옥의 출입구 근처에 있는 쇠막을 철거하고 창고를 신축하였다.

(5) 기존형태유지형

전체 가옥의 56%인 15곳의 가옥에서 나타나는 기본형태유지형은 안거리와 밖거리·부속채의 배치형태가 신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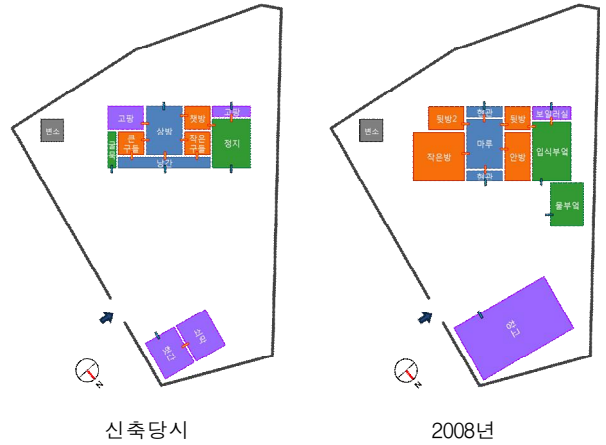


그림 8. 부속채철거후신축형의 사례 (이태순가옥)



그림 9. 기존형태유지형의 사례 (강성선가옥)

시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되지 않은 유형이나 가옥을 구성하는 단위 채의 내부는 변용되는 경우이다.

강성선가옥의 안거리는 공간의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굴목, 고팡, 낭간 등의 제주도 전통의 공간요소가 없어지고 대신 기존의 방을 키우거나 새로운 방이 신설되었다. 상방 자리에 설치된 마루는 현대 주택의 거실 역할을 하는 공간요소로 좌우의 각 방으로 통한다. 밖거리의 기본적인 평면 형태는 변하지 않았으나 내부의 각 실들은 성격이 바뀌어 현재 창고로 이용된다. 과거 2세대가 거주하여 밖거리도 주생활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그 수요가 없어져 각종 물건과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4.2 안거리 공간구조의 변화

주공간 구성요소의 확장, 용도변경, 재분할, 부가 등의 변용은 평면형태의 변용뿐만 아니라 공간구조도 변화시켰다. 공간구조 변화의 파악은 평면 형태를 다이어그램으로 도시하여 변용 전과 변용 후를 비교하였다.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은 공간구조의 『축약형』, 『부분방치형』, 『증가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8. 안거리의 공간구조 변화 양상

| 유형    | 특징   | 공간구조 |   |       |    |
|-------|--|------|---|-------|----|
|       |  | 초기   | 수 | 2008년 | 수  |
| 축약형   | 강성선가옥<br>-남간을 상방과 통합하여 마루로 변경<br>-남간과 상방중심의 공간구조패턴에서 마루(기존의 상방)중심의 공간구조로 변모  |      | 8 |       | 6  |
|       | 홍해생가옥<br>-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했던 고평과 굴목을 방으로 통합하여 마루(기존의 상방)중심의공간구조로 변모<br>-안방(기존의 큰구들)은 외부에서도 출입이 가능한 평면구조로 변모  |      | 9 |       | 7  |
| 부분방치형 | 송여랑가옥<br>-큰구들을 굴목과 통합하여 안방으로 확장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br>-챗방은 사용하지 않고 식사행위는 마루에서 이루어짐<br>-챗방은 단지 통로의 기능<br>-가옥의 한쪽만을 사용하여 난방비절약                       |      | 8 |       | 7  |
|       | 홍성춘가옥<br>-큰구들을 굴목과 통합하여 안방으로 확장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br>-가옥의 한쪽만을 사용하여 난방비절약<br>-부엌 옆에 물부엌을 증축하여 물 사용의 편의 도모                                       |      | 7 |       | 7  |
| 증가형   | 이성진가옥<br>-남간을 줄이고 작은구들을 정면으로 확장함으로써 남간으로부터의 동선차단<br>-배면에 위치한 부엌의 옆에 다용도실을 증축하여 가사노동의 편의도모<br>-큰구들은 확장하지 않음. 난방하지 않고 여름에만 사용함                       |      | 7 |       | 8  |
|       | 김중화가옥<br>-상방에서 통할 수 있는 고평을 개조하여 뒷방으로 변경<br>-정면에 위치한 큰구들은 사용하지 않음<br>-부엌의 옆에 물부엌을 증축<br>-작은구들을 확장하면서 남간을 없애고 외부와의 연결도 차단하면서 동선체계는 마루(기존의 상방)중심으로 개편 |      | 7 |       | 8  |
|       | 강우진가옥<br>-부엌의 배면에 창고를 증축하여 공간요소가 증가<br>-작은구들을 확장하면서 남간을 없애고 외부와의 연결도 차단하면서 마루중심의 동선체계로 개편<br>-기존의 뒷방 옆에 보일러창고 증축                                   |      | 8 |       | 10 |

■ 일상거처공간 ○ 챗방 R<sub>1</sub> R<sub>2</sub> 구들 ■ 가사노동공간 K 정지 B 굴목  
■ 접객및단란공간 F 남간 E 상방 ■ 수장공간 G 고평 \* 기타공간 Y 마방 ※진한테두리의 공간요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음

(1) 축약형

공간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특징인 축약형은 기존의 실들이 통합되어 안거리의 전체 평면구성요소가 줄어드는 경우이다. 강성선가옥을 예로 들면 남간을 상방과 통합하여 마루로 변경함에 따라 남간과 상방 중심의 공간구조패턴에서 기존에 상방이었던 현재의 마루 중심의 공간구조로 변경되었다. 동선체계가 단순해져 현대 주택의 거실처럼 마루의 비중이 커졌다. 홍해생가옥은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했던 고평과 굴목을 방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상방이었던 마루가 가옥의 중심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기존의 큰구들은 외부에서도 출입이 가능한 평면구조로 바뀌었다. 공간구조의 감소형은 기존 공간구성요소의 사용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멸된 경우가 아니고 제주도 전통가옥인 민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구들의 협소함 때문에 일상거처공간인 방들의 확장을 위하여 실의 통합과 정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부분방치형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가 변하고 거주자의 경제력이

축소됨에 따라 실의 사용에 여분이 생겨 방치해 두는 경우이다. 송여랑가옥은 큰구들을 굴목과 통합하여 안방으로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부엌과 마루를 연결하는 챗방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단지 통로의 기능만 하고 있다. 마루(상방)을 기준으로 한쪽만 사용하므로 난방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홍성춘가옥은 큰구들을 굴목과 통합하여 안방으로 확장하였으나 현재는 안방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상태이다. 기존의 정지는 입식부엌으로 변화되었고 그 옆에 물부엌을 증축하여 공간활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공간구조의 변화는 거주자의 감소에 의해 방치된 실의 증가와 부엌의 측면 또는 배면에 신설된 각종 편의시설에 의해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변화는 평면의 변용유형과 상관성을 갖고 있다.

(3) 증가형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증가형은 주로 일상거처공간과 가사노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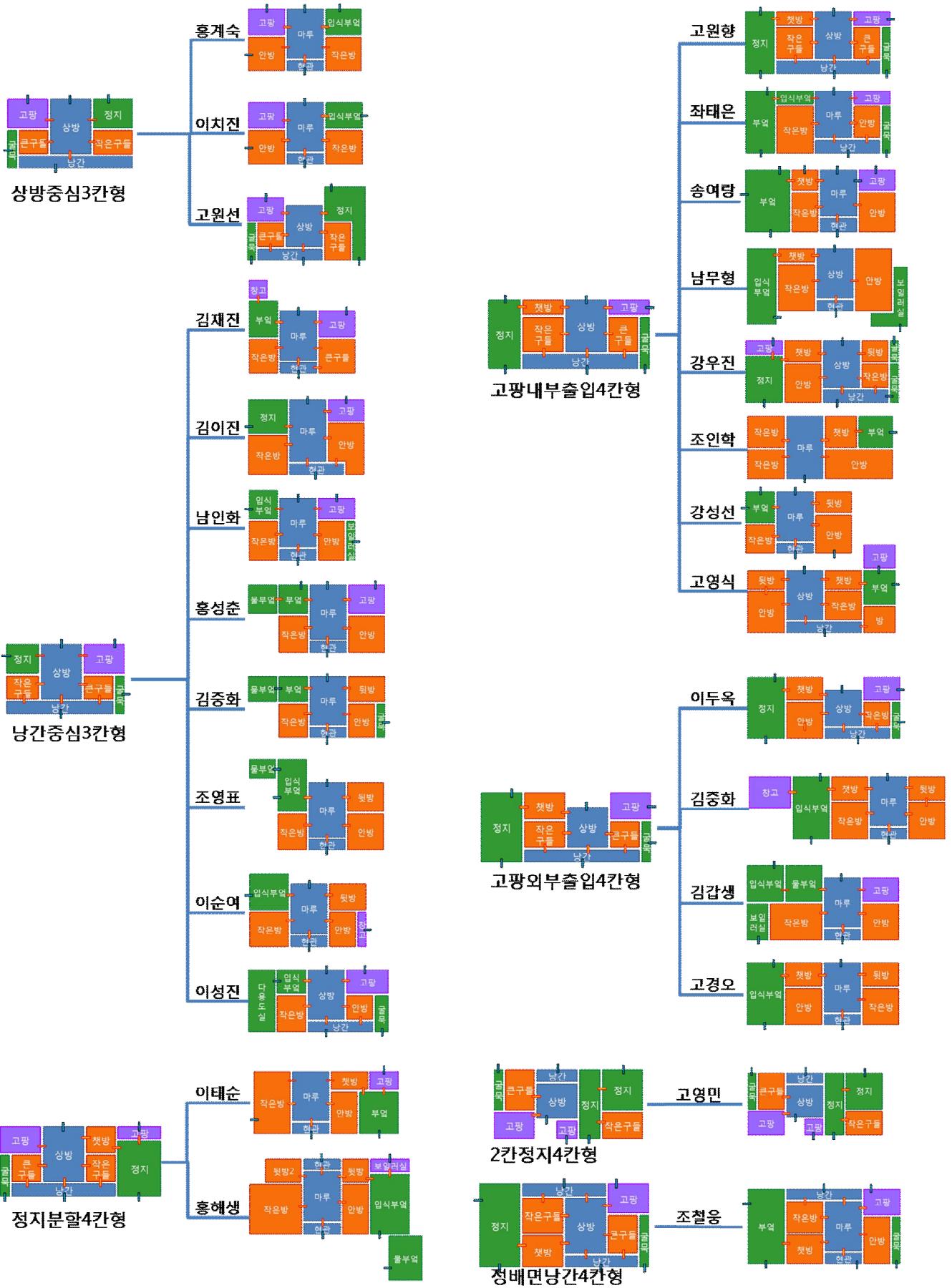


그림 10. 안거리의 공간구조유형별 변용 추이

에서 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성진가옥의 경우 안거리 정면의 낭간을 줄이고 작은구들을 정면방향으로 확장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차단되었다. 이 가옥 역시 낭간과 상방 중심의 공간구조에서 마루(상방) 중심의 공간구조로 변모하였다. 배면에 위치한 부엌의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증축되어 가사노동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난방방식 및 면적의 변화가 없는 큰구들은 난방을 하지 않고 여름철에만 사용한다고 한다. 김종화가옥은 상방에서 통하는 고팡이 개조되어 뒷방으로 변경되었다. 정면에 위치한 큰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부엌의 옆에 증축된 물부엌은 부엌과 연결된다. 작은구들을 확장하면서 낭간을 없애고 외부와의 연결도 차단되면서 동선체계는 마루(상방)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강우진가옥은 부엌의 배면에 창고가 증축되어 공간요소가 증가되었다. 이 역시 작은구들이 확장되면서 낭간이 없어지고 외부와의 연결동선이 생략되어 마루를 중심으로 동선구조가 바뀌었다. 기존의 뒷방 옆에는 보일러창고가 증축되어 바깥을 통하여 연결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제주 한림읍 귀덕마을에 위치하는 전통가옥을 대상으로 가옥 구성요소의 이용실태 및 변용, 평면의 변용, 배치의 변화 및 공간구조의 변화현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힌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귀덕마을 가옥의 배치 좌향은 주로 동향, 남동향, 북동향, 서향의 순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내륙지방의 전통가옥에서 남쪽 중심으로 안채의 향을 설정하여 일조조건을 이용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조사대상 가옥들 중 많은 수가 해안 쪽에 위치해 있어 바다를 향해 좌향을 선정한 것과 북향 등 특이한 좌향을 택한 가옥들은 입지적 조건에 있어 북쪽이 물과 농토가 있고 뒤쪽은 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입지에 따라 좌향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옥의 배치 또한 대지의 안에 위치한 안거리를 중심으로 밖거리와 기타 부속체가 대지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근거리에서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변용전 안거리의 공간구조는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3칸형은 『상방중심3칸형』, 『낭간중심3칸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4칸형은 『고팡내부출입4칸형』, 『고팡외부출입4칸형』, 『정지분할4칸형』, 『2칸정지4칸형』, 『정배면낭간4칸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셋째, 배치형태 변화의 유형을 분류하면, 1. 기존의 안거리 외에 새로운 부속체가 추가되는 경우. 2. 밖거리를 포함한 기존의 부속체가 철거되는 경우. 3. 부속체의 신설이 없이 안거리의 규모를 확장하여 평면형태가 변화하

는 경우. 4. 기존 부속체를 철거한 후 새로운 평면형태의 부속체를 신축하는 경우. 5. 안거리와 밖거리, 쇠막, 헛간 등 부속체의 배치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가옥 배치형태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가족구성원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주생활공간의 소요면적 변화, 거주자의 경제력, 대지의 형상, 기존 안거리의 규모 각 가옥별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공간구성요소의 변용은 평면의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의 구조도 변화시켰다.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은 특정 요소로 동선이 축약되는 축약형, 증가된 공간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방치형, 편의 공간의 증가로 다양한 동선을 갖게 되는 증가형으로 변용됨을 알 수 있었다. 감소형은 기존 공간구성요소의 사용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멸된 경우가 아니고 제주도 전통가옥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구들의 협소함 때문에 일상거처공간인 방들의 확장을 위하여 실의 통합과정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부분방치형은 거주자의 감소에 의해 방치된 실의 증가와 부엌의 측면 또는 배면에 신설된 각종 편의시설에 의해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나타나는 증가형은 주로 일상거처공간과 가사노동공간에서 주로 증가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마을들은 반복적인 주변정비와 보수공사를 통해 원형의 형태가 상실되어 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귀덕마을의 전통가옥들은 비교적 원형의 급작스러운 훼손이 없이 거주민의 생애주기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옥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2. 임성주, 성읍민속마을의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7.
3.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9.
4. 강장호,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구성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9.
5.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7.
6. 최재권,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박사학위논문, 2002
7. 신석하, 제주도의 덜 알려진 건축, 대한건축학회, 건축, 1998.
8. 신석하, 제주도 초가의 비례구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988.
9. 김정기·김홍식, "주택",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 보고서」, 제주도, 1973.

(접수: 2010.04.07, 심사완료: 2010.05.10)